

# 교회소식

1.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2주년 주일입니다. 감사와 축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축하 순서에 동참할 기관은 신청 바랍니다). 세례 받는 성도는 11시 30분에 당회 문답에 참석하기 바랍니다(느헤미야 실).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27

2. 북 노회에서 주관하는 St David's 교회의 마지막 예배 관계로 7월 25일 주일 예배만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한 2부 예배가 오후 2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3. 금요 저녁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4.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매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 아동부 수련회가 7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6.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7월 16(금)부터 17일(토)까지 있습니다.

장소: 20 Goodall Road, Snells Beach

7. 교회 건물은 모두 한 자선 사업가가 구입을 했으며 예배당(벽돌 건물)은 보수하여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 [https://www.onechurch.nz/news\\_nz/75815](https://www.onechurch.nz/news_nz/75815))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 u l y

## 교회사역일지

7월 3일(토) 중고청 찬양 집회  
7월 16(금)-17일(토) 청년부 동계수련회  
7월 18일(주일) 창립주일  
7월 28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 기도순서

7월 18일 (주일) 김병진 목사  
7월 21일 (수) 장연식 집사  
7월 25일 (주일) 이정인 집사  
7월 28 (수) 임태원 집사

##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발췌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8호 2021.07.11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95:6-8	인도자
*찬송	27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92장	다함께
대표기도	-----	장경희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24:1-9	인도자
찬양대 찬양	구세주를 찬송하리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교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	이태한 목사
찬송	321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은 그동안 방역이 잘되어 있어서 마음 놓고 생활했는데, 최근 갑자기 급증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입국 비행기 당분간 스톱. 국내 도시 이동 2주에서 3주 격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 돌아보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새벽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를 한다는 미명 아래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당만 밟는 선교는 아닌지 조용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섬김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곳의 상황은 현지 선교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의 삶을 극한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너무 힘들어 표현할 수 없는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4월 - 6월 사역은 Coivd-19영향으로 모이는 사역보다 나누는 사역에 치중했습니다. 기업에서 여성 생리대 1만 개를 기증받아서 현지 7개 교회에서 교회와 지역 여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물 2개도 완공되어서 2곳 소수 부족에게 샘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수 부족 교회 화장실도 필요에 따라 선물로 지었습니다. 장학금도 매달 현지 교회들이 학교와 잘 관계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26일 베트남에서 이지양, 한진숙 드림.

### 기도제목

1. 현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2. 선교사 부부의 건강과 성령 충만, 지혜와 겸손으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최희숙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6:6-10
설	봉	Sermon	자족, 경건의 유익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38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 2021년 7월 4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 창세기 23:1-6, 15-18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요 11:25-26).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사라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 사라는 127세를 살면서(1)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 위기도 겪었고 불임의 고통도 있었지만 남편을 주라 부르며 섬기고, 믿음으로 이삭도 낳았습니다(히 11:1).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사라처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복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2) 사람이나 가족이 살기 어려운 산지인 헤브론이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평생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라와 아브라함처럼(히 11:13)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록도에 와 40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섬긴 두 수녀처럼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을 매입하려 아브라함이 60년 넘게 살고 있던 그곳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세운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6).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뭇처럼 성공해서 성문에 앉는 자리에 올랐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는 삶이 있는 반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으나 그의 슬픔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 주는 인정받는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거류자라고 한 고백이(4)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소유나 환경 지위에 묶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묶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희생과 수고로 성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이뤄내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창 13:14-15) 거저 주겠다고 호의에도 끈질긴 요구로 막벨라 굴을 은 사백 세겔을 주고 사는(15)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8배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매입함으로써 약속의 땅 첫 조각의 시작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희생 없는 복이나 수고 없는 상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마 16:24, 10:30)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고전 15:31) 비싼 대가가 없다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삶을 돌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 어떤 유혹도 물리쳐야만 하는 이유를 삶으로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전 이전을 통해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내 생각, 내 의지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질병, 비자 등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 해결이 있도록.